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나는 꽃·구름·별이에요”

입양 청소년들이 말하는 가족 이야기

5~19일 광주 ‘밝은안과 21’서 전시회

“나는 꽃이다. 가족들이 옆에 있지 않으면 힘이 없이 피!!! 쓰러지는 나는 힘 없고 연약한 꽃이다. 나는 정말 이쁜 꽃이다. 부모님 눈에는 아주 이쁜 꽃이다. 그 누구보다 마음이 예쁜 꽃이다.”

자신이 직접 쓴 글귀를 펼쳐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예란(14)이는 고경석·엄진경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다.

지난 1997년 예란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고씨부부는 예란이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언젠가는 예란이가 자신이 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될 터.

고씨부부는 그 사실을 무작정 감추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 이웃, 그리고 예란이가 함께 해답을 찾아가고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개 입양’을 택했다. 몇년 뒤 또 다른 가족이 된 예빈(10)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예란이와 예빈이 그리고 또래 입양아들이 ‘사진전’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입양홍보회(MPACK)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내 입양인이 말한다-표정 그리고 그 이야기’(5~19일 밝은안과 21 갤러리)라는 주제로 마련

한 전시회를 통해서다. 한국입양홍보회는 국내입양과 공개 입양을 후원하는 입양인 가족들의 모임이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고, ‘공개 입양’은 더욱 어려웠던 시절 고씨 부부 등 공개 입양을 하고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의지하고 고민을 나누며 만들어진 단체다.

전시회에 걸리는 사진은 모두 40여 점. 모임 초창기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찍고 싶다’며 찾아와 자원봉사를 하던 사진가 박찬익씨의 카메라 앵글에 담긴 사진들이다.

“나는 구름이에요. 가족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나를 슬펐다가 웃게 만들죠. 나는 구름, 가족은 바람”

“나는 별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곁을 떠났지만 지금 부모님이 만족한다. 만약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는 외톨이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꿈을 안고 산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다. 쟁거루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그린 아이도 있고, 가족들의 즐거움 나들이 모습을 그린 아이들도 있다.

국내입양홍보회에는 현재 약 1천



국내 입양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표현한 사진전의 주인공이 됐다. 오는 5일부터 밝은 안과 21 갤러리에서 열리는 ‘국내 입양인이 말한다’전에 참여한 고예란·문영지·백송희·김한빈.(사진 왼쪽부터)

500가정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지역 회원은 100여 가정. 그중에서 30~40가정이 두 달에 한번씩 모임을 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엄마 수다방’을 갖고 정보를 교환하고 고민도 서로 이야기한다.

신애라·윤석화 등 유명인들의 공개 입양 사실이 알려면서 국내 입양, 특히 공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편견이 다

라진 것은 아니다. 당초 공개 입양을 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 상처를 받게 되자 모임을 떠난 이들도 있다.

“공개 입양 1세대’라 할 수 있는 사진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는 그들의 가족 뿐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격려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입양홍보회 광주회장을 맡고 있는 고경석씨는 “이번 전시로 국내 입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길 바란다”며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367-3737. 010-9433-71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7시 41분 해질 17시 33분 달돋이 21시 46분 달질 10시 02분

동장군 기승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지역	기온
광주	흐리고 비/눈 -2/4℃
목포	흐리고 비/눈 -1/4℃
여수	구름 많고 비 1/6℃
완도	흐리고 비/눈 0/4℃
구례	흐리고 비/눈 -5/4℃
예남	흐리고 비/눈 -1/4℃
장흥	흐리고 비/눈 -1/4℃
고흥	구름 많고 비 -3/6℃
순천	구름 많고 비 -3/5℃
영광	흐리고 비/눈 -3/4℃
진도	흐리고 비/눈 -1/4℃
전주	흐리고 비/눈 -3/5℃
남원	흐리고 비/눈 -4/3℃
옥산도	흐리고 비/눈 3/6℃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관심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4/0	-6/0	-6/1	-6/3	-4/4	-4/4

소한 한파 몰아친다

광주·전남 오늘부터 기온 뚝... 영하 6도까지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이 이름값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소한인 5일을 전후해 광주·전남에 매서운 한파(寒波)가 몰아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1도, 낮 최고기온은 3도~6도 분포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욱 떨어져 아침

출근길 대비는 물론 동과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5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2도 가량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최소한 10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일 0시58분 광주 백운동서 첫 출산

■ ‘2010 경인년 1호’

2010년 경인년 광주 첫 출생아는 지난 1일 0시58분에 남구 백운동 모아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김명선·이보길씨 부부의 첫째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새해 처음 광주를 떠난 항공편은 이날 오전 7시 광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00, 광주

공항에 첫 착륙한 항공편은 김포발 광주행 아시아항공 OZ8701편이었다.

한편 1일 현재 광주지역 최고령자는 북구 용두동에 거주하는 최양단(113) 할머니, 남구 백운동에 사는 최익진(101) 할아버지로, 광주시는 이들 첫 출생아와 최고령자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축전을 보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자동차 열쇠 뽑고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전남체신청 이색 시무식

전남체신청의 2010년 새해 시무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체신청 직원들은 4일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자동차 키 반납과 2010년 새해 소망성취를 위한 희망나무 만들기에 참여한 다. 이날 하루 동안은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이재홍 전남체신청장도 이날 걸어서 출근한 후 오전 8시20분부터 직접 체신청 1층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하며 덕담과 함께 소형 화분을 나눠줄 예정이다.

/강필성기자 kps@

2010년 1월 4일 월요일

구분	지역	기온
광주	광주	-2 ~ 4
목포	목포	-1 ~ 4
여수	여수	1 ~ 6
완도	완도	0 ~ 4
구례	구례	-5 ~ 4
예남	예남	-1 ~ 4
장흥	장흥	-1 ~ 4
고흥	고흥	-3 ~ 6
순천	순천	-3 ~ 5
영광	영광	-3 ~ 4
진도	진도	-1 ~ 4
전주	전주	-3 ~ 5
남원	남원	-4 ~ 3
옥산도	옥산도	3 ~ 6



퍼시스 소용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광주에 새로 태어난 퍼시스 소용 그 가치를 아는 직원들만이 알 수 있다

퍼시스 소용

FURSYS TEHRIS Room